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주제34(1945)년 11월 28일 아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계시는 역전러판으로 신의주그리스도교 청년회 회장이 찾아왔다.

그는 전날에 진행된 군중대회에서 상공인들과 종교인들의 정당인 사회민주당 대표로 연설을 한 사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신의주에 와서 교인들을 벌써 만나본다는것이 오늘에야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어제 있는 군중대회에서 환영사까지 하여주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치는 처하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회장은 국사에 바쁘신 장관님께 《천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관심을 끼쳐드린 신자들의 죄가 많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그에게 자신의 열자리를 권하고 신의주의 형편에 대해 물으시었다.

한없이 소탈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감동된 그는 어려움도 있고 자신이 보고 느낀 감정을 사실 그대로 말씀올렸다.

회장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지금 일부 교인들속에서 공산정권이 서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몹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자기가 걱정하던 문제를 솔직히 말씀올렸다.

당시 신의주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신봉하고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서 의지까지할데 없던 도시소시민들과 농민들로서 행어나 죽어서라도 《천당》에 가서 《복락》을 누릴것을 바라던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믿지 않지만 종교를 믿는것은 누구나 다 자유입니다. 신자들은

하늘을 믿어도 미국의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 나라도 해방되었는데 무엇때문에 미국의 하늘을 믿으면서 조국땅에 또다시 양키들을 끌어들이겠는가, 미국놈들은 세게도처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학교와 병원, 레베랑을 차려놓고 《자선》을 베푸는척 하면서 종교를 침략과 약탈의 도구로 리용하였다. 미제는 지금도 38°선이남을 강점하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우리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해버렸다고 하시었다.

회장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진심으로 감복하여 자신은 신학자로 하시며 믿어 천당을 가서 복락을 누려야 한다고 설교는 많이 하였지만 종교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이제야 종교의 참뜻과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제 나라에서 제법을 믿고 제법에 지상천국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러면 종교적인 리념을 표방하는 시간에 오직 자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우에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회장은 잘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네 신자들은 오직 장군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의다지었다.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으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교시는 오늘도 우리 계세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참다운 애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여준다.



—총련중앙단체, 사업체결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총련중앙단체, 사업체결기모임이 지난 10월 12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충만의장과 박우호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 각 부의장들,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의 국장들, 간도지방 총련본부위원장과 중앙단체, 사업체 일꾼들, 총련중앙 참사, 부국장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약되고 박우호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주신 력사적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열정과 결의를 안고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인데 대하여 언급하고 강령적서한관철만이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증침되는 난관속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의 존립과 장래를 담보하고 조국과 보조를 맞추어 힘있게 전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단체, 사업체들의 사업이 각별히 중요하며 모든 단체, 사업체들이 어떻게 분발하고 혁신을 일으키는데에 이반 운동의 성과여부가 달려있다고 하면서 단체, 사업체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만이 광범한 동포들의 힘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애국애족운동의 모든 전진, 모든 분야가 들끓어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단체와 사업체들은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전형창조의 주제와 추켜세울 단위를 정확히 정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서한관철을 위한 투쟁을 모가 나고 박력있게 조직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을 통하여 동포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사랑을 깊이 새겨주고 서한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동포들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총련의 여러 중앙단체와 사업체 대표들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총련의 단체와 사업체들에 중대한 과업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단체와 사업체마다 이미 세운 서한관철을 위한 운동구상과 결집에 대하여 서철하면서 반드시 새 전형, 새 전형을 창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적선임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허충만의장이 모임을 결속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총공세를 애국애족운동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의 진수는 조선혁명이 증대한 국면에 들어선 오늘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중심으로 받들고 투쟁도와 속도를 조국과 같이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각계각층 동포들의 힘을 하나로 합쳐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 운동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있게 열어가는것이 서한관철의 총적방향이 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도와 동포들의 행복, 후대들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실천적명령이라고 하면서 그는 총련의 단체, 사업체들이 애국애족운동의 모든 전진과 모든 분야에서 서한관철투쟁을 일제히, 총공세로 벌려나갈것을 결기해나선데 이번 모임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그 위력을 과시해올수 있는것은 총련중앙으로부터 분회에서는 각각 조직들을 점진하게 갖추고있을뿐 아니라 주력군과 새세대, 중년층들을 묶어올수 있는 계층별단체들과 민족교육사업을 비롯한 애국운동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단체와 사업체들을 다 포괄한 명실공히 총련합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광범히 묶어세우는것은 계층별단체들의 일관한 사업이며 권익옹호와 민족교육사업, 경제사업과 문화에 실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력량을 발동하여 동포들에게 실리를 주는데 있어 총련의 힘은 단연 본진임을 자랑하고 하면서 그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어려운 시련을 겪은 력사적나날에 단체와 사업체들이 애국애족운동을 창조할데 있어 과감히 벌려나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긴장한 정치군사정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백년 싸워 백년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강인한 의지로 서한관철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 새로운 전형, 새로운 전형을 창조할수 있는 사업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총련의 중앙단체, 사업체의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기모임을 가지는것은 총련의 력사상 처음되는 일이다. 이번 결기모임은 총련중앙과 현부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 중앙단체와 사업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관철에 과감히 떨쳐나서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최진욱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12)

전쟁점경의 8월사태를 형성하여



2015년 8월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리는 남조선호전관들의 악랄한 대결소동은 국도에 달했다.

남조선호전관들은 무력적이고 군사분계선 서부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지뢰폭발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재개하였는가 하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베라살포 행위를 감행해나섰다.

반공화국심리전방송과 베라살포행위는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고 대결선언이었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8월 20일 남조선호전관들에게 48시간안으로 재개한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을 전면철폐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에 넘어간다는것을 최후통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장관들은 8월 20일 오후 공화국이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으로 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는 거짓말을 꾸민데 대해 대고 신성한 공화국의 령도에 수습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무모한 군사적행동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기어코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범죄적책동이였다.

조선형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공화국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를 발표하였다.

보도에서는 조선형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된다는것과 남조선군부호전관들이 격노한 조선인민군 전선련합부대장병들의 보복열기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런이어 20일 밤에 긴급히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진상태로 이전하며 전진지대에 준전진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남조선군부호전관들이 48시간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을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과 있을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적행동을 지원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었다.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에 적대세력들은 혼비백산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 예상치 못한 공격방법으로 미국을 놀라게 할것으로 보인다.》고 비

명을 지르며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되어있던 미2사단의 사격훈련을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는 등 겁에 질려 떨고 미국상선을 밧고 날뛰던 남조선호전관들도 무릎을 꿇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심리전방송을 중단하는 등 군사적대결소동을 걷어치우겠다는 문전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전철한 국면수호, 국익사수의 그리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산악같이 일떠선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앞에 미국과 남조선호전관들의 전쟁대결행동은 풍지박산나고 전쟁국면으로 치달던 위협천만한 사태가 평정되게 되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 다시 되짚은 평온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전막강한 군력과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군이 호수에 이복될수 있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관들의 전쟁대결행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적의 총대로 단호히 짓밟아버리는것은 어제 오늘도 그리고 매일도 변함없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사대와 외세의존은 수치와 파멸의 길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건지하지 못하면 자유와 독립을 지킬수 없고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새긴 교훈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지난 세기초 십나라오랑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았던 안된것은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와 외세의존정책과도 관련된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쫓겨든 채든 봉건통치배들은 날로 쇠퇴해가는 국력을 추세를 생 각은 하지 않고 형세가 변하는 데 따라 오늘날 이 나라, 매일은 저 나라에 의존하면서 나라를 보존하고 정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로 하여 조선을 둘러싼 령강들의 각축전이 더욱 심해지고 중앙에는 대포와 합선을 끌고온 십나라오랑캐무리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운명을 안고있었다.

조선의 하늘에 망국의 비운이 짙게 드리운 그때 도와나선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20세기초 조선의 비참한 운명은 세상에 믿을것은 자신의 힘밖에 없었다. 근대에 대한 통수권도 미국이 쥐고있고 경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 자원, 판매시장에 의존되어있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도 외세의존과 굴종사상이 지배하여 사회에 침투하였는것 역시 외세의존과 굴종사상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치욕을 강요당하였는가.

세상을 경악시킨 동두천년인살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매항리폭탄투하사건과 두 녀중학생학살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처참한 범죄사건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제침략군은 지난 70여년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그러면서 도 불명정죄하고 예측적인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에 따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대매국에 이골이 난 남조선통치배들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여지없이 짓밟으며 제세상처럼 날치는 범죄집단인 미제침략군에 해마다 《방위비담당금》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액수의 혈세까지 섬겨버치는 쓸개빠진것도 서슴지 않고있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분열과 대결, 전쟁행동을 추구하러 않았더라면, 그리고 남조선의 민족반역세력의 매국배적행위인 친미사대와 굴종행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사는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것이고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참화도 입지 않았을것이며 남조선에서 《안보》불안과 경제와 민생파탄, 미군에 의한 끔찍한 참사도 없었을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미국의 부분별한 북침전쟁행동은 오늘 윤석열역적매국의 친미사대, 대미 추종행동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있다.

《대통령》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동맹강화》를 떠들며 미국상선과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확대와 《확장역적전략행위》 재가동, 미 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계를

합의한것도 윤석열역적매국이 미국과 아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런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있는것도 바로 윤석열역적매국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차례진것은 무엇인가. 미국에 자금을 투자한 남조선대기업들이 거꾸로 손해를 보고 미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계에 드러는 막대한 자금부담과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데 대한 압박만 받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역적매국은 민족의 천년속적인 십나라족속들에게 아무 굴종하며 우리 계에게 저지른 일본의 대타락을 덜어주는가 하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일본것들과 독도주변에 같은 전쟁행동을 벌리는것과 같은 쓸개빠진것도 서슴지 않고있었다.

그럼수록 일본것들은 로골적으로 역적매국을 《동맹》취급하면서 과거사문제와 《독도명령권》문제,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 등에서 더욱 오만하게 놀아내고있다.

윤석열역적매국의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책동에 의해 남

조선은 예측과 파국의 진멸에 날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남조선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 치욕과 비극은 더욱 증대되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 민족의 운명을 망치는 길이라면 자주, 자존은 나라와 민족의 강성과 번영의 길이다.

이것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은 공화국의 자랑한 력사가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이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기에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 일떠서게 되었으며 제국주의림합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 방해행동을 짓부셔 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예측과 파국의 길이며 자주의 길만 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이라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피땀과 력사의 교훈이며 외세의 지배에 현대판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과 자주, 자립, 자위로 강위력한 공화국의 판이한 두 현실이 새겨주는 철리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조선민족의 구성원이 된 금지와 자부심을 안고

총련 고베조선교양학교에는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졌는 취주약소조가 있다.

지난 수십년간 소조는 애국의 열정이 솟아올라게 하는 힘있는 행진곡들을 연주하여 동포들을 고무하였다.

연주회가 진행될 때면 지역 동포들은 물론 도교 등 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중앙예술경연대회에서 금

상을 수여받은 취주약합주 《달려가자 미래로》는 늘 관객의 절찬을 받는다. 민족의 대를 곳곳이 이어가려는 학생들의 역센 의지가 안겨온다. 학생들이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한다.

그들의 연주모습을 본 외국인들도 말한다. 조선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총련의 학생예술선전대라는 금지와 자부심들이 애국열의의 강화발전을 위해 애쓰는 취주약소조원들은 동포사회의 사랑을 받고있다.

기다려지는 수업

《조국찬가》, 《조선민족》, 《조선신보》... 이 학교에서 힘을 넣고있는 서예수업은 어린 학생들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새겨주

자기 조국과 민족, 동포사회와 학교에 대한 재일조선인학생들의 사랑과 긍지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된다.

총련의 학생예술선전대라는 금지와 자부심들이 애국열의의 강화발전을 위해 애쓰는 취주약소조원들은 동포사회의 사랑을 받고있다.

는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수업지도는 고려서예연구회 상임리사가 맡고있다.

그는 뜻과 획의 예술인 서예는 민족적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늘 말하곤 한다.

학생들은 하나의 글자, 한개의 점에서도 심오한 뜻과 사상, 아름다운 민족성이 정서적으로 안겨오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하루하루 자기들의 붓글 솜씨를 늘려나가는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기쁨을 금치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서예수업을 즐겨 기다린다.

본사기자

